

2013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 오전)

논제 I

[가]는 삶의 질을 증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의 선(the common good)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적 자본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자기보존이 위협받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개인이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같은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강력한 국가로 인해 개인은 타인과의 끝없는 투쟁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의 시각에서 볼 때, [나]의 내용은 개인의 이익과 생존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적 경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국가는 공동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친다. 따라서 [가]에 나타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 차원을 넘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2013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 오전)

논제 Ⅱ

제시문 [가]는 사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사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공동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공동선이라는 대의는 많은 함정들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집단주의의 함정이다. 제시문 [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공동의 가치가 유럽인에게만 적용되고 칼라하리 사막의 원주민 여인에게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공동선이 특정 집단에만 귀속되고 이 집단 밖의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주의사회를 옹호하고 있는 제시문 [라]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부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공공선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자칫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당한 산물을 폄하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마]는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공공선을 실천하기 위한 책임을 배분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집단이 처한 위치에 따라 무엇이 공동선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추구할 때 먼저 공공선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공공선인지를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동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정당한 성취욕구 및 사익이 부당하게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2013학년도 수시 2차 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 오전)

문제 Ⅲ

1안이 채택되는 경우의 정화비용은 $(50-40)*1 + (70-40)*2 + (80-40)*3 = 10 + 60 + 120 = 190$ 원이다.

2안이 채택되는 경우 A 기업은 배출권 40장을 C기업에 팔게 되어 거래 금액과 정화비용의 합은 $\{(50*1) + 80\} + \{(70-40)*2\} + \{(0*3) - 80\} = 50 + 60 = 110$ 원이다.

두 안을 비교하면 120단위의 같은 양의 공해물질을 배출할 때 1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2안을 채택하는 것이 사회전체로 정화 금액이 80원 적게 든다.

이는 환경오염 문제를 국가의 규제로만 해결하려 할 때 보다 국가의 규제와 더불어 시장원리(기업들에게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